

2017년 2월 21일, 대정읍 하모리 이정자씨 댁, 문순덕(김은정정이슬) 조사.  
강순화(여, 1935년생, 대정읍 가파리)

**[조사자]** 도체비 나온댄 헌 말은 안 들어봅디강?

**[제보자]** 하도 시대가 묽으난 안 헷주마는 그거는 하영 나왓주게. 하영 나와. 우리 하르방 살앗이민 이제 여든넷인디 우리 하르방네 총각 때도 다 보고랜.

**[조사자]** 그걸 골아줍써

**[제보자]** 총각 때난 한밤중이 가당 예를 들엉 하동에서 놀당 올라가당 보민 가운데 가파도 가운데 방애가 잊어낫어. 그 방애에. 발을 쉐말추룩 그 방에 왕 닥닥닥 두드려동 동드레 둘앗젠텐. 뒷날은 보민 사람 죽엇저. 경 허연. 그런 헛불은 많이 낫주게.

**[조사자]** 헛불이랜 굽니까? 도체비랜 안 허고?

**[제보자]** 헛불이주게. 응. 도체비 빛젱 헷주게.

언치낙 헛불 나완. 그추룩 헹 그 헛불이 동드레 둘안. 뒷날은 보민 영장낫저. 궂인 거 뎅기믄 아마도 영장. 연날에 우리 이칩이. 이칩덜이라. 우리 하르방네 날 때 경 한 쟁이라. 우리 시어멍도 골안게.

이 집이 아기 나고 동서녁집이 아기낫젠텐 이제 우리 하르방 나고 여긴 다른 뜰이 낫젠텐. 그때 바로 도체비가 다른 눈에 보엿젠텐. 도체비가 이렇게 멩텡이 지고 헹 그 때 아기어멍이 어떻 허난 물 사다놓고 감감무중허난

“아휴. 도체비 뎅겼저. 뎅겼저.”

헹게. 하도 돌아나가난 침 주는 하르방들 다 혼 방에 놋젠텐. 아기어멍도 눕고 허난 갈 때는 몸이 다 자려 불엇젠텐. 몸이 다 자령 돌아난 사람이 연날은 문을 창문을 덮었다 열었다. 이렇게 가난 치메자락을 창문에 좁지난 돌아상 창문 올앙 그 치메자락 영 튀언 가야. 가 불어야 그 사람들이

“그 사람 돌아낫저 없다. 이젠 촛자.”

그땐 아무것도 엊일 때난 헛불. 헛불로 헹 찾아도 못 촛앙 뒷날은 보난 가파도 메구리 메는디 잇수다. 게염주리 매구리 메는데 그디 보선 한착 문드렸어랜. 시체도 못 찾앙 물에 강 션. 그건 우리 어머니네가 다 굽디다. 도체비도 하영 나난 쟁.

**[조사자]** 경 허믄 어디 가믄 도체비 나는 자리난 멩심하란 말도 골아낫수가?

**[제보자]** 멩심허라는 건 공동묘지서

“혼자 뎅기지 말라.”

할머니. 어머니들이

“그단 갈 때는 혼자 뎅기지 마라.”

경 골아난.

- 핵심어 : 가파도, 도체비, 헛불, 영장